

3040 벤처 CEO 열전 번개장터 이재후 대표

‘MZ세대 취향존중 거래’ 제시 중고시장 이끄는 가치소비 리더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대면없이 결제·배송 솔루션 구축
“고정관념 버리면 중고거래 합리적”

소비를 통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무조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제 중고거래는 소비자와 소비자간 개인 거래인 C2C모델로 자리를 굳혔다. MZ세대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찾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추세다. 한정판 상품이나 고가의 명품 거래도 비일비재하다.

2011년 선보인 ‘번개장터’는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여타 중고거래 플랫폼과 달리 ‘취향을 잇는 거래’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재후 대표는 번개장터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투자를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만나지 않고도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결제, 배송 솔루션을 구축했고, 개인과 개인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도 도입했다. 결제체계를 본인인증 기반으로 바꾸고, 고객센터를 오픈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가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적 오류를 보완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재후 번개장터 대표는 “업계 최초로 ISMS 인증을 받았고, 다양한 노력



지난달 27일 오픈한 번개장터 ‘브그스트랩’ 2호점 전경.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이다.

의 결과로 3점대 후반이던 앱 평점도 4.4점 정도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앱 MAU도 200만 내외에서 300만 대로 성장하고, 하루 방문자 수도 90만 명 정도로 늘었다. 올해 거래액은 1.7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마친 인재다.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전문가로 통하는데, 번개장터 합류 전 티몬에서 사업전략실장, 스토어그룹장,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스탠퍼드 MBA가 본인의 경영 마인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에 첨단 트렌드와 기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잠시, 기대와는 다르게 스탠퍼드는 철학을 가르쳤다고.

“저의 모든 수업이 ‘진정한 나’에 대

한 성찰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입학 에세이 주제도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였습니. 이런 분위기에서 ‘다름’의 의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취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취향을 잇는 거래를 표방하는 번개장터와도 인연이 닿은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중고거래가 사람들이 새로운 취향에 쉽게 입문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가 ‘남이 쓰던 것’이라는 고정관념만 버리면 매우 합리적인 옵션이라는 것.

“소비의 개념을 영원히 소유하지 않고 잠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중고거래를 통해 취향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다”며 “번개장터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알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세조회·매입·판매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 내폰시세 서비스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지난 9월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지난해 4월 560억원 투자 유치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투자다.

중고시장의 가능성과 번개장터의 강점인 MZ 세대 고객 기반이 더해져 양사 플랫폼의 T&T(Traffic & Transaction) 제고 관점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취향 기반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스니커즈를 테마로 한 오프라인 공간 ‘브그스트랩’을 더현대서울에 선보였으며 지난달 말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브그스트랩 2호점’을 오픈해 화제를 모았다.

스니커즈가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번개장터는 스니커즈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를 위한 공간을

앞으로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번개장터는 중고 패션 브랜드를 사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저의 경우 ‘타이틀리스트’나 ‘제이린드버그’ 등 관심있는 골프 브랜드 상의를 10만원 내외에 사고 팔 수 있어서 좋다”며 “요즘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의 절반도 번개장터에서 거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향 중심의 앱 개편뿐만 아니라 거리 제약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강화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의 결제 및 배송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번개페이와 번개장터 포장택배 서비스를 도입했다.

번개페이는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차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며, 미발송이나 계좌번호 노출 우려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강중이다.

번개장터 포장택배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시스템이다. 물품 픽업부터 포장 배송까지 번개장터가 전 과정을 책임진다.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방문한 기사에게 물품만 전달하면 픽업은 물론 포장까지 마쳐 배송한다. 포장택배 서비스는 베타 런칭 이후 택배나 주로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던 기존 중고거래의 번거로움을 보완하며 판매 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고객 경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90% 이상의 재사용의사 피드백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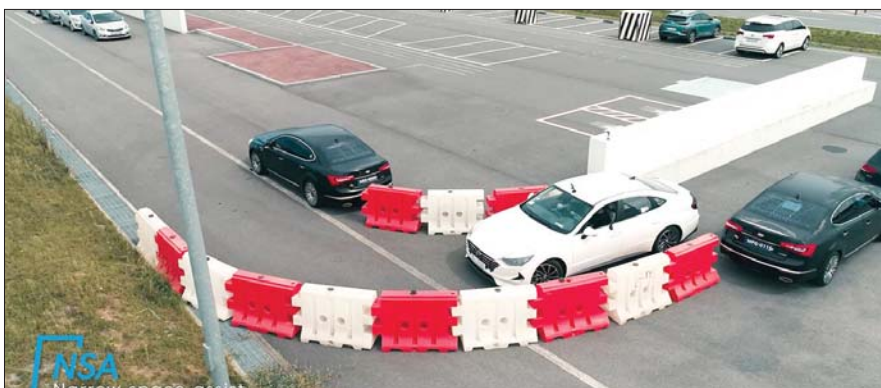
모비스, 차세대 주차 제어시스템 개발... 버튼 한번으로 골목주행 ‘척척’

협로·후방주행, 자동주차 기능 통합
양산 중인 초음파 센서 기반 기술 개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필요한 부품을 단순 제조하는 기업으로 양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미래도심형 모빌리티 핵심 기술로 주목받은 차세대 자동차바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관심을 집중시킨 현대모비스가 이번엔 좁은 골목길이나 막다른 길에서 앞차와 맞닥뜨려도 걱정없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이 서산 주행시험장에서 도심형 자율주행 신기술인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MPS)을 장착한 차량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

현대모비스는 협로주행, 후방자율주행, 원격 자동주차 기능을 통합한 도심형 운전지원시스템(ADAS)인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MPS)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좁은 골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량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 전폭을 기준으로 좌우 각

각 40cm의 여유 공간만 있으면 좁은 골목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사이드미러를 펼치면 사실상 한 뼘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셈이다.

차량 2대가 대치한 막다른 골목에서는 후진 자율주행도 가능하다. 내 차의 주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버

튼을 누르면 스스로 후진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스티어링 휠(핸들)과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하주차장의 회전식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면도로가 많고 주차 환경이 여유롭지 않은 국내와 유럽 등지에 특화됐다”며 “대형 SUV의 인기와 함께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에도 적용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 적용을 먼저 제안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로직과 양산 중인 초음파 센서를 기반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가 고속주행이나 먼 거리에 위치한 사물을 인식하는데 유용하지만, 좁은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는 오히

려 초음파 센서가 적합한 점에 착안했다. 초음파 센서가 근거리 사물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로직과 제어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는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편의 기술을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에 통합했다. 차에서 내려 리모컨을 누르면 빈 공간을 찾아 직각이나 평행으로 주차하는 ‘원격 자동주차 시스템’, 내 차 주변 360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충돌 방지’ 등이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도심형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초소형 도심형 모빌리티 컨셉인 엠비전팜을 선보였으며, 지난달에는 공유형 자율주행차를 위한 폴더블 조향시스템, 90도 회전이 가능한 이코너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

/양성문 기자 ysw@